

합격선 하락 기대했는데...교대 수시 경쟁률 '5년내 최고'

광주교대, 221명 모집에 1223명 지원 '5.53대 1' 전국 10곳 1만3470명 지원...전년비 18.7% 늘어

광주교대를 비롯해 전국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학원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대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집계됐다.

이는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전(2021~2024학년도)에는 2022학년도 경쟁률(5.82대 1)이 최고였다.

광주교대가 총 221명 모집에 1223명이 지원해 5.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4.09대 1(245명 모집, 1003명 지원)에 비해 상승했다.

최근 4년 동안 수시경쟁률이 내리막이었던 광주교대는 5년만에 전환점을 맞았다. 2021학년도

5.49대 1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난 2024학년도 4.09대 1까지 내려앉았다.

최고 경쟁률은 교직적성우수자전형으로 40명 모집에 500명이 지원해 12.50대 1로 집계됐다. 전남 교육감추천전형은 1.70대 1(60명, 102명), 농어촌 학생전형이 4.70대 1(10명, 47명)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나머지 모든 전형은 상승 마감됐다.

전국 10개 교대 수시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시 지원자 수는 총 1만3470명으로, 역시 5년 새 가장 많았다. 전년(1만1348명)보다 18.7% 늘었다.

이에 반해 수시 모집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4.58대 1에서 6.52대 1로 상승했다. 경인교대의 경쟁률은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서울교대 지원자 수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다. 경쟁률은 3.64대 1에서 4.52대 1로 높아졌다.

이들 두 개 교대를 포함해 제주교대 6.35대 1→7.88대 1, 대구교대 4.99대 1→6.49대 1, 공주교대 5.62대 1→5.75대 1, 전주교대 3.53대 1→4.81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반면 부산교대(6.76대 1→6.57대 1), 춘천교대(5.77대 1→5.67대 1), 진주교대(4.93대 1→4.85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수도권 2개 교대 지원자 수는 2455명에서 3451명으로 40.6% 늘었다.

나머지 비수도권 8개 교대 지원자는 8893명에서 1만199명으로 12.7% 증가했다.

종로학원은 "교대 수시 지원자수 증가는 교원집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 하락, 합격선 하락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원자수 증가,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으로 지난해 수시 미충원 32.7%보다 미충원 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너를 만나고 싶어 2024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주재 공연인 이동형 거리극 '아스팔트 부르스(너를 만나고 싶어)'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늘어나는 전남 '청소년 도박' ...상담기관이 없다

3년간 56명 입건 '전국 3번째' ...시설 확충으로 치유 사각지대 없애야

전남에서 도박범죄로 형사입건된 청소년이 매년 늘고 있지만 도박중독을 해결할 전문 상담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청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광주는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청소년이 2021년 6명, 2022년 1명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6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2021년 21명이었으나 2022년 1명으

로 급감한 뒤 2023년 6명, 올해 8월까지 28명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3년(2021년~2024년 현재)간 도박범죄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경기남부(148명), 서울(75명) 다음으로 전남(56명)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도박 범죄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지역의 도박 전문 상담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광주시에는 지역센터와 전문 상담기관이 각 1곳이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센터와 전문 상담기관이 없는 곳은 전남과 세종시 뿐이다.

청소년 도박 상담은 헬프라인(전화 1336)이나 네티즌을 통해 초기 상담이 가능하지만 깊이

있는 치료를 원할 경우 상담사가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 도박 중독 청소년 치료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2021년 63명, 2022년 77명, 2023년 163명, 올해 7월 말까지 125명의 청소년이 상담을 받았지만, 전남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사이버도박 위험군 조사대상에 모든 학년을 포함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청소년이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시설을 확충하고 치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조선대에 6·25참전 명비 건립 '지방 사립대 최초'

국가보훈부와 협약

국가보훈부가 지방 사립대 중 최초로 조선대에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다.

보훈부는 23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 본관에서 강정에 보훈부 장관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조선대는 올해 안에 교내에 조선대 동문 출신 6·25 참전 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

비를 세우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1946년 7만 2000여명이 뜻을 모아 건립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시 연합대학'에 참여해 학생들의 학업권을 보장하고 인재를 양성했다.

조선대 출신 호국 영웅은 육군 장교로서 6·25 전쟁에 참전에 무장공비를 토벌하다 산화한 소병민 중령 등이 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6월 연세대, 지난 11일 부산대와 호국영웅 명비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정에 보훈부 장관은 "국가수호를 위해 용감

하게 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는 조선대학교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것"이라며 "보훈부는 학생들이 교정에 세워진 명비를 통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호국영웅 명비 건립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조선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전시 연합대학에 참여했으며, 학생들 또한 조국 수호를 위해 참전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명비 건립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율주행 로봇으로 시각장애인 전시관람 돕는다

지스트, 23~25일 실증 서비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23~25일 광주세광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전시관람 컨시어지 실증 서비스'를 한다.

자율주행 로봇 개발 전문기업 트위니가 제작한 자율주행 로봇에 햅틱 디바이스를 부착해 전시 공간 내에서 시각장애인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람 경로를 안내한다.

개인 보행 속도에 따라 주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동 접근성 지원 기술도 선보인다.

전시 작품 정보는 음성으로도 제공된다.

연구책임자인 융합기술제학부 윤정원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전시 관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구현이 목적"이라며 "2025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전시 관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